

1. 이슈 분석

최근 10년간 소아·청소년의 진료 질환 변화

1. 분석배경

-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, 대기 오염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진료 질환의 변화를 가져옴
- 18세 미만 소아·청소년의 입원과 외래 진료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미친 영향을 파악함

2. 분석 방법과 내용

- **대상:** 입원과 외래 진료(의과만 해당)를 받은 18세 미만 소아·청소년 대상
- **자료원:** 2007년~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
- **분석 방법:** 질환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여 진료 질환 대비 다빈도 질환의 비중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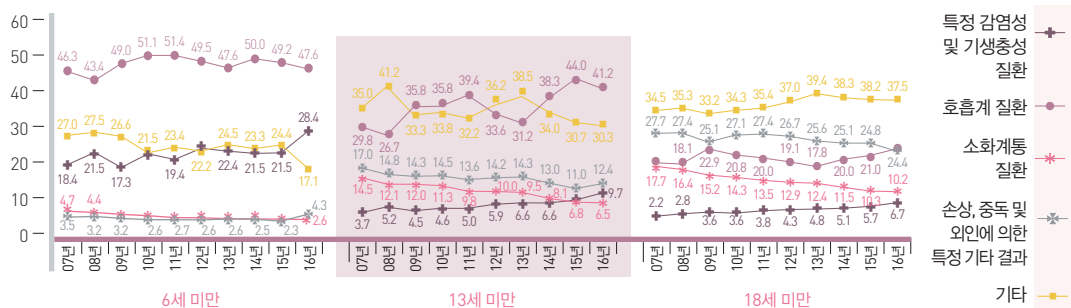
3. 분석결과

입원 진료 질환 변화

- 최근 10년간 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’의 입원 진료 비중은 증가하고, ‘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’와 ‘소화기계통 질환’은 감소하는 추세임

[그림 1] 입원 진료 질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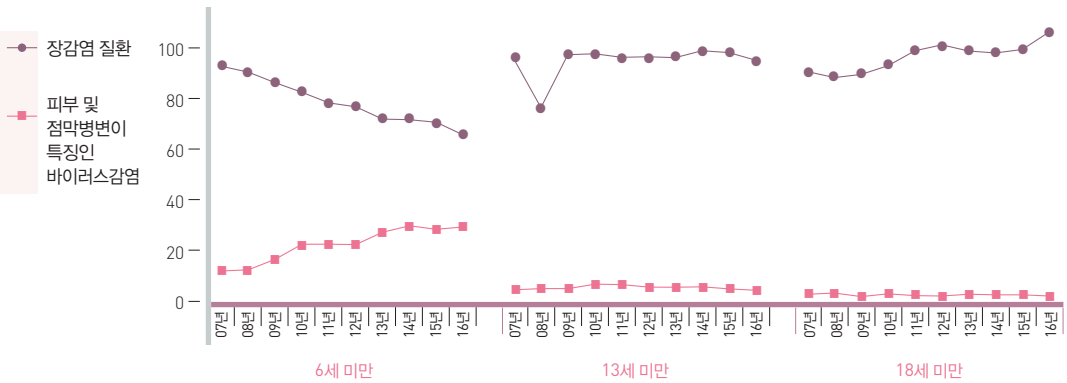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세부 질환별로는,
 - ▶ 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’ 입원 진료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고, 특히, ‘장 감염 질환’의 비중이 높음(그림 2-1)
 - ▶ ‘소화기계통의 질환’ 중에서 6세 미만은 ‘탈장’, 7-18세 미만은 ‘충수 질환’으로 진료받은 비중이 높음(그림 2-2)
 - ▶ ‘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’로 인한 입원 진료 비중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며, 주로 ‘머리의 손상’ 비중이 높음(그림 2-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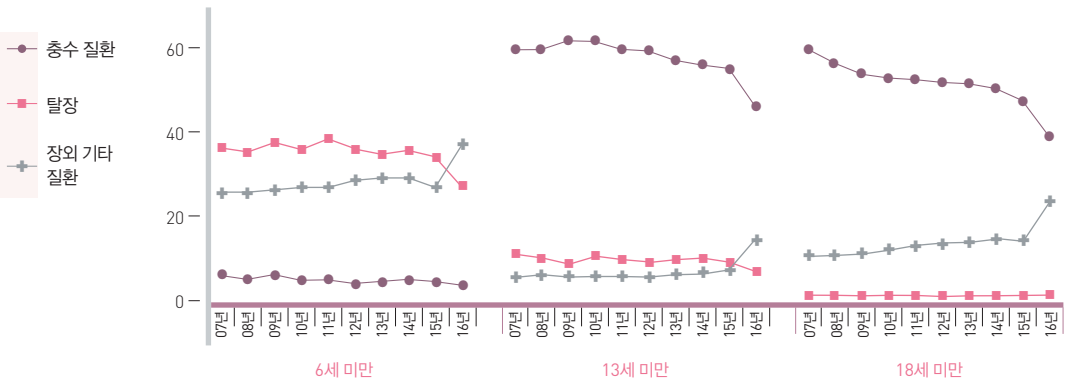
[그림 2-1] 세부질환별 입원 진료 변화(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)

(단위: %)



[그림 2-2] 세부질환별 입원 진료 변화(소화기계통의 질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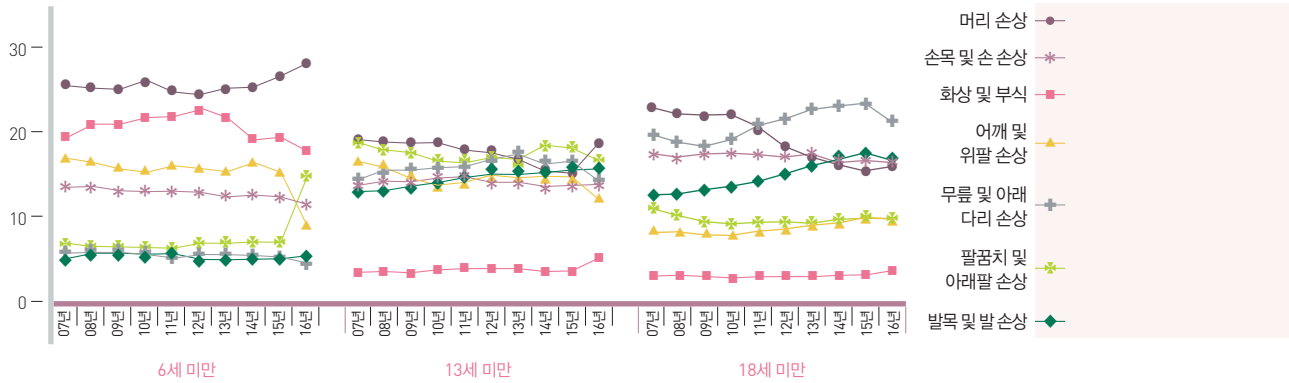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※ 세부질환별 값은 부록 1. 참조

[그림 2-3] 세부질환별 입원 진료 변화(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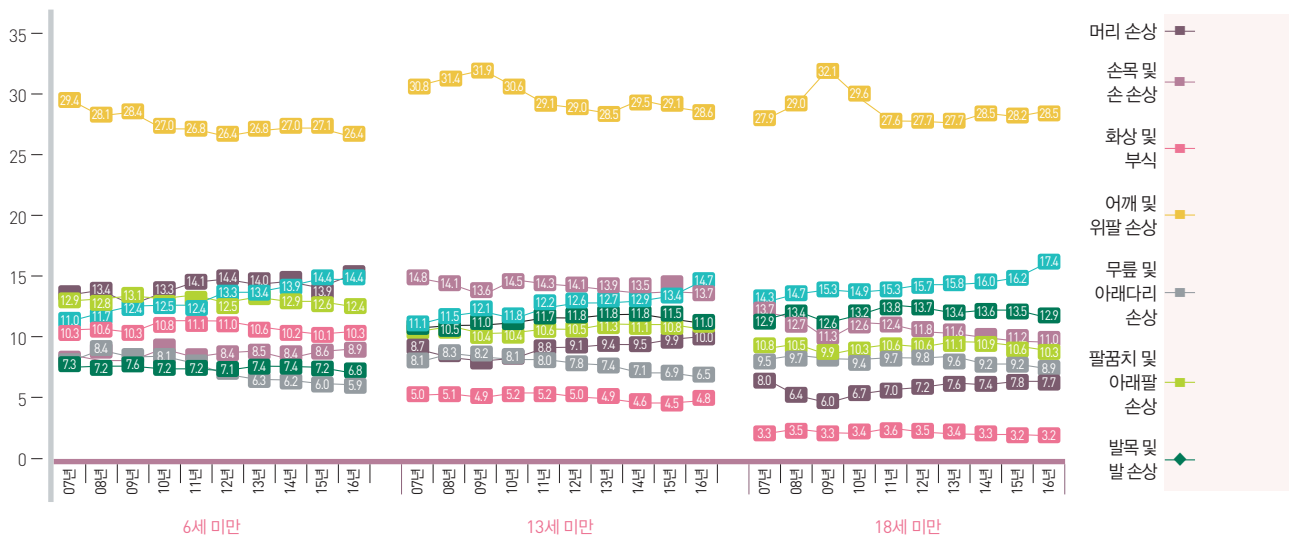


외래 진료 질환 변화

- 외래 진료 질환의 질환구성은 입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, ‘눈 및 눈 부속기 질환’, ‘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’이 다빈도 진료 질환으로 분석됨
- 외래 진료 질환 중에서는 ‘호흡계 질환’의 비중이 높았고, 다른 다빈도 진료 질환은 연령대별로 다름
 - ▶ 6세 미만은 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’, ‘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’, ‘귀 및 유약 돌기 질환’이 다빈도 외래 진료 질환이며,
 - ▶ 7~18세 미만은 ‘눈 및 눈 부속기 질환’, ‘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 질환’ 비중이 높음

[그림 3] 외래 진료 질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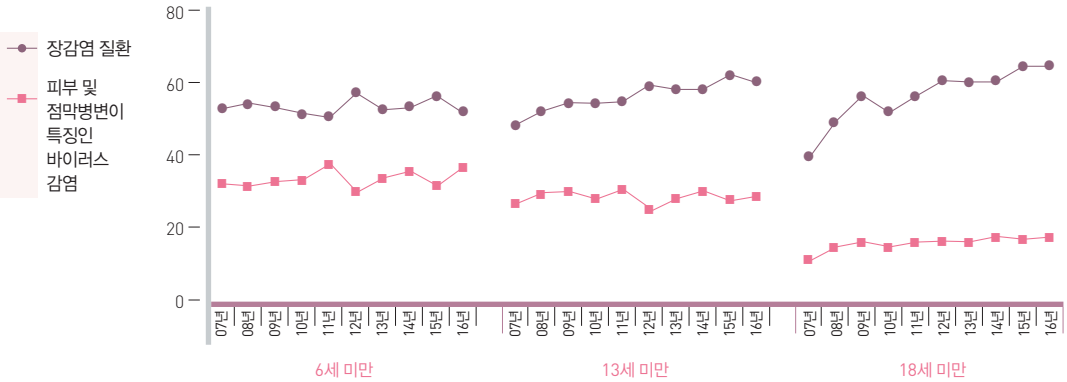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최근 10년 동안 외래 진료 질환의 구성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’ 진료 비중은 증가하고, ‘소화기계통 질환’은 감소함
 - ▶ 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’ 중에서는 주로 ‘장 감염 질환’ 진료 비중이 높고, 특히 13~18세 미만에서 진료 비중의 증가 폭이 큼(그림 4-1)
 - ▶ ‘눈 및 눈 부속기 질환’에서 6세 미만 유아는 ‘결막 장애’로 외래 진료를 받는 비중이 높고, 7~13세 미만 소아는 ‘안근, 양안운동, 조절 및 굴절 장애’의 비중이 높음(그림 4-2)
 - ▶ ‘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’에서 7~18세 미만 청소년 중 ‘발목 및 발 손상’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비중이 증가함(그림 4-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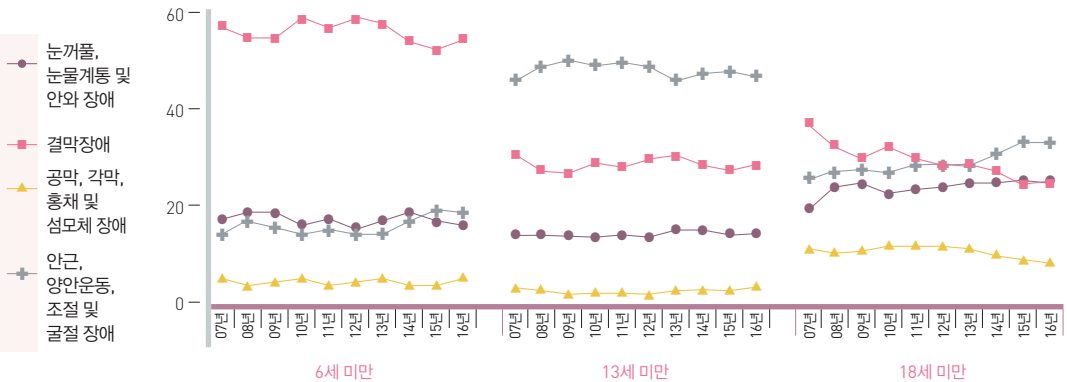
[그림 4-1] 세부 질환별 외래 진료 변화(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)

(단위: %)



[그림 4-2] 세부 질환별 외래 진료 변화(눈 및 눈 부속기 질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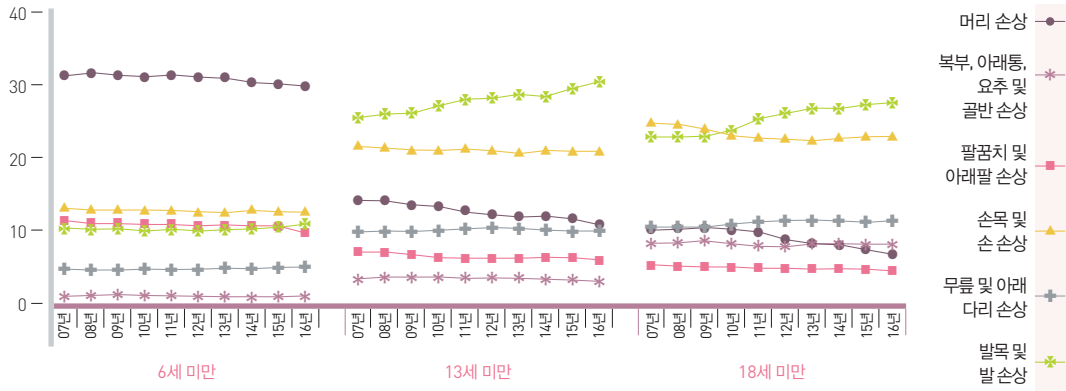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※ 세부질환별 값은 부록 1. 참조

[그림 4-3] 세부 질환별 외래 진료 변화(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)

(단위: %)



4. 결론

- 최근 10년 동안 18세 미만 환자들은 호흡계 질환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, 그 다음으로 6세 미만은 감염성 질환, 6~18세 미만은 손상으로 인한 진료가 많음
- 손상과 소화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감염성 질환 진료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소아·청소년의 감염성 질환 예방·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

※ 세부 데이터는 부록 1. 참조

